

#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Effect of Korean and Western Attire of Eldery Women and  
Perceiver's Age on Impression Formation

Myoung-Hee,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

##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effect of dress(Korean traditional dress and suit) of elderly Women, and situ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design was  $10 \times 2 \times 2$ (dress  $\times$  perceiver's age  $\times$  situation) factorial design by 3 independent variables. The stimuli of color photographs of female in her 60's model and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were used. Six variables of impression formation were used: preference: elegance: potency: activity: feminine: and modernity. Samples were 400 women, 200 were in their twenties and 200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alpha$  -reliability,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with the combination of Korean traditional color(light blue upper dress with dark red purple collar and string · dark blue skirt) had the most positive effect on impression of elegance. Pink traditional dress and light blue traditional d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impression of potency, activity, and modernity. Red purple suit had a positive effect on potency and modernity. The interaction between dress, perceiver's age, and stituation was significant for the impression of activity. Women in their 40's and 50's perceived the activity of red purple suit positively in the situation of alumnae meeting more than in the wedding ceremony. The perceived age of the stimulus pers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dresses. Traditional dresses were perceived older than suits were. Women in their

---

\* 이 논문은 199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40's and 50's evaluated preferences of the dresses positively more than 20's did. This means that 40's and 50's feel similarity with the stimulus person more than 20's as the age of model was in their 60's. The result supports the theory that similarity is basic factor in interpersonal attraction.

Key Word : elderly women, impression formatin, Korean traditional dress, suit, perceiver's age,  
situation : 노년여성, 인상형성, 한복, 수트, 관찰자의 연령, 상황

## I. 서 론

인간은 사회생활의 환경 속에서 여러 자극을 받아들여 지각(perception)하게 된다. 지각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일 경우 대인지각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후광효과, 유사성 가정, 고정관념, 판단자의 속성 등이 있다(강혜원, 1995). 외모는 대인지각의 초기단계에서 상대방을 판단할 때에 중요한 단서가 되며 지각대상자의 외모에 대한 판단에는 신체조건과 함께 옷차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지각대상자의 의복은 착용자, 관찰자, 사회적 맥락과 관련되어 인상효과에 작용한다.

대부분의 인상형성 연구에서 첫인상의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측면은 평가적 차원이며, 이것은 지각대상자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뜻한다. 또한 시각적 반응의 구성 요인은 3~6개로 분류되어 평가 차원 외에 활동, 능력, 품위, 화려함, 여성적, 독특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홍병숙, 1988; Damhorst, 1990; 강혜원, 이주현, 1990).

의복착용자에 대한 평가연구는 간편하게 그림을 자극물로 사용할 수 있으나(Sweat & Zentner, 1985; 김재숙, 1991; 강혜원, 고애란, 1991), 그림은 실제 상황과 차이를 지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황에 좀 더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이 여러 개의 실험의복을 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이선경, 1993; 문영보, 이인자, 1993),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CAD system에 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자극물의 사용이 증가되어(이미숙, 1995;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이인자, 1996; 이명희, 강승희, 1998) 비교적 연구절차가 간편하면서 연구내용이 실제에 가까운 상황으로 근접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복의 인상형성 평가를 위한 실험연구에는 대부분 의복착용자와 관찰자 집단이 대학생이나 젊은 연령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상형성 과정에 미치는 의복의 효과를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며, 특히 노년 인구에 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노년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노인들도 과거의 정체된 생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개선된 외모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노년에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체적 능력이 감소되는 시기이므로 젊은 연령층에 못지 않게 외모 개선이 필요시된다. 선행연구(정향숙, 1993; 최금순, 1995)에서 노년여성들은 젊어보이는 스타일을 가장 원했고, 동시에 우아하며 품위있는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여성의 인상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의복의 효과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의복의 어떤 요소가 좀 더 젊게 보이며 긍정적인 인상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의복은 한복과 양장을 선택하였으며, 양장은 한복과 비슷한 격식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장 수트 차림으로 정하였다. 이것은 노년여성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한복 착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년여성의 한복과 양장 착용이 관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의복의 속성 중에서 색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며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이은영, 1990) 의복 색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였다. 또한 사회적 상황(Damhorst, 1984-85; 강혜원, 이주현, 1990)과 관찰자의 특성에 따라 인상형성이 달리 나타나므로(Bell, 1991; 김광경, 1992), 상황과 관찰자의 연령을 본 조사에서 연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즉 한복과 양장차림에서 나타나는 인상효과가 지각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관찰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지 조사하고자 한다. 상황은 결혼식과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출하는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인 관찰자의 연령은 20대와 40~50대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여성의 인상형성 과정에서 한복과 양장 차림이 미치는 영향을 의복 색을 변화시켜 조사하며, 동시에 상황과 관찰자의 연령이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 보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여성의 인상형성 과정에서 한복 및 양장 차림의 의복, 관찰자의 연령, 상황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규명한다.

둘째,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의복 자극물의 인상형성 차이를 밝힌다.

셋째, 노년여성이 착용한 의복에 따라 연령이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지 조사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복과 인상형성

인상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복 변인으로는 의복 유형 및 스타일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의복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강혜원, 이주현(1990)은 한복 및 양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조사하였는데, 평가 요인에서는 양복 착용자가 한복 착용자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품위 요인에서는 한복 착

용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재숙(1991)의 연구에서는 한복과 서양의복 착용자의 평가가 달리 나타나 한복이 호오평가에서 더 긍정적이었고, 젊은 의복 착용자가 노인보다 모든 요인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의복 유형(정장, 캐주얼), 형태(유행형, 기본형), 색(유행색, 기본색)을 변화시킨 그림의 사진으로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의복 유형 및 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으나 유행색 여부에 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숙(1995)은 컴퓨터 그래픽에 의하여 아동의 체격과 의복을 변화시켜 연구한 결과 혈동 요인이 격식차림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되었다고 하였으며, 전호경, 황선진(1998)은 입산부의 의복스타일에 따라 호의도와 업무수행 능력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의복의 색은 인상형성 관련변인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것은 색채가 의복디자인에 있어 매우 큰 표현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의복의 색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김광경(1992)의 연구에서 분홍색과 검색 수트 색은 능력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블라우스나 스커트 차림에서는 검색 스커트가 분홍색 스커트보다 더 능력있게 평가되었다. 이주현, 조궁호(1995)의 연구에서는 파란색 수트의 착용자는 가장 능력 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빨간 suit 착용자는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차미승(1992)의 연구에서 현시성과 성숙성 차원은 의복 형태보다 색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았으며 활동성과 편안성은 색채보다 형태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았고 빨강은 가장 현시성이 높아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향미, 김재숙(1998)의 남자의 인상형성 연구에서는 의복 색이 지각자의 성별이나 의복 격식차림 수준보다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고, 평가적 차원에서는 검색 의복이 지적이고 예의 바르게 보였으며, 사교적 차원에서는 적벽돌색 의복이 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명희, 강승희

(1988)의 연구에서는 빨강재킷이 무채색보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능력있게 지각되었다.

이현화, 박찬부(1998)는 한복의 배색을 달리하여 인상형성을 연구하였는데, 남자보다 여자는 배색에 따라 선호·평가 요인을 달리 지각하였으며, 저고리와 치마가 다른 배색이면서 깃·고름색이 저고리색과 다른 구조를 가장 선호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상하동색의 한복은 개성·주의집중 요인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혜숙, 김재숙(1998a)의 한복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색이 평가성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매력성 차원에서는 빨강이 가장 멋있고 매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 후속 연구(이혜숙, 김재숙 1998b)에서 한복 착용자의 상하 배색형은 상하 동색형과 이미지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노랑과 빨강이 조합된 배색형은 각각의 상하동색보다 사회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저고리색은 치마색보다 한복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 색은 평가 요인, 능력, 활동성,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주었으며 한복의 배색에 따라 인상이 달리 평가되었으므로 색의 범주는 인상형성시 중요한 영향을 주는 특성이었다

## 2. 관찰자의 연령과 인상형성

상대방의 인상을 지각할 때 같은 대상자라도 관찰자의 성별, 연령,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Bell(1991)의 연구에서는 젊은층은 캐주얼 스타일, 노년층은 격식 차림이나 보수적 스타일에 대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애란(1990)은 여성 슈트 착용 모습을 관찰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연구하였는데, 남자집단에서는 40대가 대학생보다 다리와 목노출 정도에 따른 정숙성 조작 변인에 더 영향을 받았고 여자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남미우, 강혜

원(1994)의 남성 지각대상자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중년집단이 청년집단보다 평가요인에서 상황과 의복 단서에 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상황에 따른 의복규범을 더 잘 인식하였다. 김광경(1992)은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여성 지각대상자의 인상형성을 연구하였는데, 남자는 연령별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는 차이가 있어 50대는 남성적 형태의 분홍색을, 20, 30대는 남성적 형태의 감색 suit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의복으로 지각하였다. 이은미, 강혜원(1994)은 정장 차림의 남성 모델의 사진을 사용하여 의복 착용자의 연령, 의복단서,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같은 의복이라도 의복 착용자의 연령에 따라 전달되는 인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40, 50대 관찰자는 20대 관찰자보다 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 3. 사회적 상황과 인상형성

의복은 착용자가 어떤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context)에서 그 의복을 입었는가와 관련되어 의미가 달리 전달된다. 즉 같은 의복이라도 그 배경(상황)에 따라 인상형성이 달라진다.

Damhorst(1984-85)는 정장 또는 캐주얼 복장의 남녀가 사무실 환경 배경에서 어떻게 지각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두 남녀가 같은 유형의 복장을 하였을 때보다는 정장과 캐주얼 복장이 남녀 사이에 대조되었을 때 더 많은 추론을 이끌어 내었다. Rees, Williams와 Giles(1974)는 넥타이를 맨 대학생들을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는데,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을 때 더 지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면접시험 때의 대학생들은 넥타이를 매고 있는 것이 더 지적으로 간주되었다. Johnson과 Roach-Higgins(1987)의 연구에서는 면접상황에서 능력평가는 적절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가장 높았으며, 독립성은 부적절한 의복, 창의성은 중간 정도의

적절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강혜원, 이주현(1990)은 남녀 대학생을 피험자로 하여 3가지 상황에서 한복 및 양복착용자의 지각을 비교하였는데 양복착용자는 한복착용자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황보다 의복유형이 더 강한 영향을 주었다. 여자 착용자는 학교를 배경으로 할 때 더 능력 있게, 직장상황에서는 더 품위 있게 지각되었다. 남자 관찰자는 한복차림을 더 개성적으로 지각하였으며, 한복착용자가 특히 학교를 배경으로 할 때는 운동권이나 의식 있는 행동과 등으로 지각되었다.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에서는 상황이 의복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인상형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면접상황의 캐주얼 차림은 평가 요인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주말 외출시 정장은 활동성 요인에서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평가 요인, 활동성, 능력, 품위, 지성, 창의성 등의 인상효과가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 (between-subjects)설계이다. 10×2×2의 요인설계로서 독립변인은 의복(10), 상황(2), 관찰자의 연령(2)이며, 종속변인은 노년여성의 옷차림에 관한 관찰자의 인상형성이다.

#### 1.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한복과 양장 수트를 착용한 노년여성의 모습으로 의복단서 변인을 한복과

양장의 의복 유형 및 색 배합에 따라 변화시킨 것이다.

(1) 모델 선정 :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타원형의 표준형 얼굴로서 표준체형에 가까운 여성을 60대 연령층에서 5명 선정하였다. 이들을 얼굴 중심의 인물사진을 촬영한 후(4×5cm 크기) 이 얼굴 사진을 판단 집단에게 보여주고, 표준형의 얼굴을 순서대로 2명 택하여 순위를 표시하게 하였다. 판단집단은 의류학 전공교수 및 대학원생 30명이었다. 1순위에 2점, 2순위에 1점을 주어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1명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의 키는 160cm, 몸무게는 54kg이었다.

(2) 의복 선정 : 의복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장과 한복의 색 배합에 따라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자극물의 의복 선정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의류학 전공자로 구성된 판단집단의 평가를 거쳤다. 한복은 A라인 실루엣으로 결정하였으며, 양장은 테일러드 칼라의 수트로 하였다. 의복 색은 난색과 한색 계통으로 구분하여 난색은 분홍과 자주색으로, 한색은 옥색과 남색으로 결정하였다. 옥색은 선행연구(김재숙, 1991)에서 노년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한복 색이며 남색과 자주색 계통은 한복의 치마색으로 많이 착용되는 색이므로 택하였다.

한복은 6가지 색의 자극물로서 ① 분홍의 상하동색 한복, ② 분홍저고리와 자주색치마, ③ 깃과 고름이 어두운 자주색인 반희장 분홍저고리와 자주색치마, ④ 옥색의 상하동색 한복, ⑤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 ⑥ 깃과 고름이 어두운 자주색인 반희장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로 정하였다. ③번과 ⑥번의 한복에 모두 어두운 자주색 깃과 고름을 사용한 것은 시장조사 결과, 치마·저고리의 색에 관계 없이 연한색 저고리에는 어두운 자주색 고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트는 상하 같은 색으로 ① 분홍, ② 자주색, ③ 옥색, ④ 남색의 4가지 색으로 정하였다.

##### (3) 자극물 제작방법

모델이 흰색 테일러드 칼라의 수트와 흰색 라운드 네크라인의 블라우스를 착용한 경우와 흰색 한복을 착용한 경우를 사진 찍어 2가지 사진을 제작하였다.

모델의 의복착용 자세, 헤어스타일, 배경과 같은 과의 변인들은 일정하게 통제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웨이브가 있는 짧은 머리모양이었다. 사진을 칼라스캐너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복 색을 변화시켰다. 이를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예비조사용 자극물로서 5×13cm 크기로 출력하였다.

계획된 자극물의 의복 색은 한복의 색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먼저 수트색으로서의 착용가능성을 판단집단에게 평가받았다. 즉 가장 착용가능성이 높은 색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홍, 자주, 옥색, 남색을 색조의 변화를 주어 최종 자극물의 3배수인 12개를 제작하였다. 판단자 집단은 노년여성의 수트로서의 착용가능성을 6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착용가능성이 전혀 없다."에서 "착용가능성이 매우 있다."에까지 1~6점을 주었다. 그 결과 선택된 색은 평균치가 4.2 이상이었으므로 착용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수트에서 사용한 4가지 색을 기초로 한복 그림을 제작하였다. 본 조사용 자극물은 수트와 한복 색의 변화를 준 10종류의 A4용지 칼라 출력물이었으며 그림의 크기는 10×26cm였다. 의복에 따라 자극물의 종류를 C1에서 C10까지의 기호를 붙였다. C1, C2, C3, C4는 분홍, 자주, 옥색, 남색의 수트였고 C5는 분홍의 상하동색 한복, C6은 분홍저고리와 자주색치마, C7은 반회장 분홍저고리와 자주색치마, C8은 옥색의 상하동색 한복, C9는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 C10은 반회장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였다. 6가지 한복의 색을 다시 판단자 집단에게 평가받았는데, 모든 한복의 착용가능성 평균치가 6점척도에서 4.4 이상이었으므로 각 의복의 착용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사용된 의복 색은 Munsell의 색체계에서 2.5RP8/4.5(연한 분홍), 10RP3/10(자주색), 7.5BG9/2(연한 옥색), 7.5PB2.5/6(진한 남색)에 해

당되었다. 또한 반회장 저고리의 깃과 고름에 사용된 색은 Munsell의 색체계에서 10RP3/6(어두운 자주색)에 해당되었다(COS, 1997).

〈그림 1〉 〈그림 2〉는 자극물 C1의 수트와 C7의 한복이다. 각 자극물은 결혼식과 동창회에 참여하는 모습의 2가지 상황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자극물은 의복과 상황(10×2)으로 변화를 주어 총 20종류가 사용되었다.



〈그림 1〉 수트 (자극물 C1)    〈그림 2〉 한복 (자극물 C7)

## 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 쌍 선정

의미미분척도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여대생 80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조사를 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의복유형과 색이 다르게 조합된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에게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 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박혜선, 1982; 강혜원, 이주현, 1990; 김재숙, 1991; 이현화, 박찬부, 1998; 이명희, 강승희, 1998)에서 사용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피험자가 응답한 용어를 참조하여 6개 차원을 선정하였다. 6개 차원과 관련된 형용사를 택하여 7단계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으나, Cronbach의  $\alpha$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각 차원별로 2~5개씩의 문항이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호 차원의 문항은 호감이 가는-호감이 안가는, 자연스러운-어색한, 보기 좋은-보기 싫은 이었고, 품위 차원의 문항은 고상한-천박한, 품위있는-품위없는,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위엄있는-위엄없는, 점잖은-점잖지 않은 이었다. 능력 차원의 문항은 화려한-수수한, 강한-약한, 능력있는-능력없는, 대담한-소심한, 세련된-촌스러운 이었고, 활동 차원의 문항은 활동적인-비활동적인,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능동적인-수동적인 이었다. 여성성 차원의 문항은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 여성적-남성적, 가벼운-중후한 이었고, 현대성 차원의 문항은 보수적-진보적, 고전적-현대적 이었다. 6개 차원의 선호, 품위, 능력, 활동성, 현대성의  $\alpha$  신뢰도는 .73, .79, .64, .72, .64, .61 이었다.

### 3) 질문지 구성

질문지는 자극물로 제시된 60대 여성의 모습과 의복착용자의 상황 제시,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의미미분척도 문항, 자극물의 연령 평가, 피험자의 연령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상황은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모습"과 "동창회에 참석하려는 모습"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는데 각 상황을 그림과 질문지에 모두 제시하였다. 자극물의 연령 평가는 그림에 있는 의복착용자의 연령을 추측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는 서울 및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00명과 40~50대 여성 200명으로서 총 400명이었다. 각 피험자는 1개의 사진에만 응답하도록 하여 관찰시 지각대상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개의 자극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자극물 한 개에 20대와 40~50대가 각각 10명씩, 총 20명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자극물의 사진을 보고 각 쌍의 형용사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인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12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Cronbach의  $\alpha$  신뢰도계수 산출, 삼원변량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의복, 관찰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한복 및 양장 차림의 의복, 관찰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인상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보조적 분석으로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선호평가는 주효과를 볼 때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의복과 상황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2개 독립변인 및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없었다. MCA 평균의 차이에 의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40, 50대가 20대보다 자극물의 의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극물의 모델이 60대 연령이므로 20대는 모델의 모습이 자신과 유사하지 않아서 친근감을 느끼지 않으므로 40, 50대 관찰자보다 선호 평가가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유사성(similarity)이 상호간의 호감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표 1> 의복, 관찰자의 연령, 상황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N=400)

분석 방법	변량원		df	선호	품위	능력	활동성	여성성	현대성		
3원 변량 분석	의복(A)		9	1.78	5.16**	7.73**	8.33**	19.62**	5.38**		
	연령(B)		1	55.33**	19.57**	20.15**	18.13**	6.55*	2.09		
	상황(C)		1	1.45	2.18	.15	3.60	.25	.45		
	A×B		9	.81	.87	1.10	.35	.94	2.08*		
	A×C		9	.38	1.22	1.71	3.10**	1.43	1.69		
	B×C		1	.07	.51	.01	.00	.66	.20		
	A×B×C		9	1.55	.88	1.65	2.48**	1.61	1.15		
	집단내(오차)		360								
MCA	변인	속성	N	평균의 차	평균의 eta	평균의 차	평균의 eta	평균의 차	평균의 eta	평균의 차	평균의 eta
	의복	C1	40	.09	-.58	.31	.45	.79	.68		
		C2	40	-.24	-.38	.56	.81	-.39	.74		
		C3	40	.34	.17	-.23	.40	.49	.50		
		C4	40	-.27	.13	.14	.24	-1.07	.12		
		C5	40	-.03	-.09	-.75	-.74	.83	-.53		
		C6	40	.15	-.41	.11	-.23	.31	.02		
		C7	40	.42	.28	.40	.19	.46	-.31		
		C8	40	-.06	.21	-.38	-.70	-.13	-.52		
		C9	40	-.30	.28	-.11	-.08	-.80	-.25		
		C10	40	-.04	.39	-.07	-.35	-.48	-.46		
	연령	20대	200	-.44	-.21	-.20	-.24	-.12	-.10		
		40,50대	200	.44	.21	.20	.24	.12	.10		
	상황	결혼식	200	.07	-.07	.02	.11	.02	.04		
동창회		200	-.07	.07	-.02	-.11	-.02	-.04			
				.06	.07	.02	.08	.02	.03		

\*p < .05 \*\*p<0.1

C1: 분홍수트 C2: 자주색수트 C3: 옥색수트 C4: 남색수트

C5: 분홍한복 C6: 분홍저고리와 자주색치마 C7: 반회장 분홍저고리와 자주색치마

C8: 옥색한복 C9: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 C10: 반회장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

된다는 유사성 원리(한규석, 1995)를 지지한다.

품위, 능력, 여성성 평가는 주효과에서 의복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상황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2개 독립변인 및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MCA 평균에 의하여 의복에 따른 차이를 보면 품위평가에서는 C10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C7, C9가 높았으며 C1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C6, C2의 평균치가 낮았다. 즉 반회장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를 입은 한복차림이 가장 품위있게 평가되었고, 반회장 분

홍저고리·자주색치마와 옥색저고리·남색치마를 입은 한복차림도 품위 있게 평가되었다. 분홍수트는 가장 품위없게 평가되었고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와 자주색수트도 비교적 품위 없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한복은 양장보다 품위 있게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복에서 깃과 고름이 자주색으로 된 반회장 저고리의 배합형이 단색보다 품위 있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이현화, 박찬부(1998)의 연구에서 깃·고름 색이 저고리 색과 다른 구조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주색 반희장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가 가장 품위있게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상류층 여성복의 전통적인 배색이므로 관찰자에게 더욱 품위있고 점잖게 지각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양장은 난색계통이 한색계통보다 더 품위 없게 평가됨으로써 관찰자가 색에 의해 품위의 차이를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능력 차원에서는 자주색수트(C2)가 가장 능력 있게 평가되었으며, 분홍한복(C5)이 가장 능력 없게 평가되었다. 자주색수트가 가장 능력 있게 평가된 것은 선행연구(이명희, 강승희, 1998)에서 빨강재킷이 능력 있게 평가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분홍한복은 연한 색으로서 노년여성이 많이 착용하는 한복의 색이 아니므로 능력 없게 평가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반희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는 한복 중에서 특히 가장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한복의 경우도 난색계통의 적절한 배색은 좀 더 능력 있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여성성 평가에서는 분홍한복(C5)과 분홍수트(C1)가 매우 여성적으로 평가되었고, 남색수트(C4)가 가장 여성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홍이 매우 여성적인 색이며, 감색이나 어두운 청록이 남성적인 색상이라는 일반적인 색 이미지 이론(조필교, 정혜민, 1998)을 확인하여 주었다. 즉 관찰자는 의복의 색으로 노년여성의 여성적-남성적인 인상을 평가하며, 같은 색이라도 양복보다 고유의 전통한복을 입었을 때 더 여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CA 평균에 의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40, 50대가 20대보다 품위, 능력, 여성성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즉 40, 50대는 20대보다 자극물의 인상을 더 품위 있고 능력 있으며, 여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활동성 평가는 주요효과를 볼 때 의복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상황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의복 및 상황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의복, 연령 및 상황의 3

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 MCA의 의복의 평균을 보면 자주색수트가 가장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한복 중에서는 반희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가 비교적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분홍한복(C5)과 옥색한복(C8)은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연한색의 상하동색 한복은 관찰자에게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60대 노년여성도 의복 색에 따라 활동성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혜숙·김재숙(1998)의 연구에서 노랑과 빨강의 상하배색형 한복이 노랑이나 빨강의 상하동색형보다 사회성 이미지가 증가하였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연령에 따른 활동성 평가의 차이는 20대가 40, 50대보다 자극물의 인상을 활동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20대는 주로 활동성이 높은 캐주얼한 의복을 많이 착용하므로 전체적으로 자극물의 의복을 활동성이 낮게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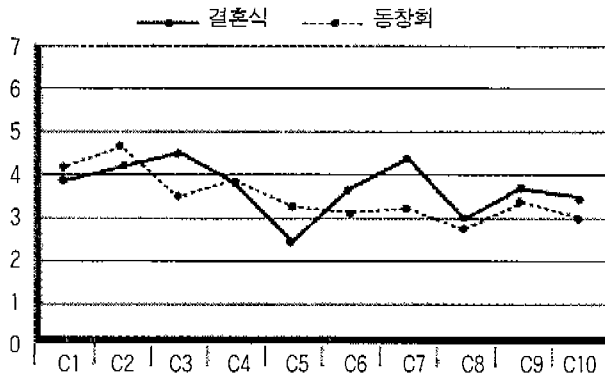
활동성 평가에 대한 의복과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 형태는 <표 2>, <그림 3>과 같다. 옥색수트(C3)는 동창회 상황이 결혼식 상황보다 활동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으나 분홍한복(C5)은 동창회보다는 결혼식 상황에서 활동성이 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결혼식에 분홍한복을 입는 것은 가장 활동적이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반희장 분홍저고리와 자주색치마(C7)를 입은 모습은 동창회에서는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결혼식에서는 동창회보다 더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노년여성의 한복차림의 인상효과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성 평가에 대한 의복, 연령,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는 <표 3>, <그림 4>와 같다. 자주색수트(C2)는 40, 50대 여성이 동창회의 상황에서 활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옥색수트(C3)는 40, 50대 여성이 결혼식의 상황에서 활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분홍한복(C5)은 특히 20대 여성이 결혼식 상황에서 활동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분홍저고리·자

〈표 2〉 활동성 평가의 의복과 상황에 따른 평균치

(N=400)

상황	수 트				한복(저고리·치마)					
	분홍 C1	자주 C2	옥색 C3	남색 C4	분홍 C5	분홍· 자주 C6	반회장분홍 · 자주 C7	옥색 C8	옥색· 남색 C9	반회장옥색 · 남색 C10
결혼식	3.85	4.10	4.45	3.77	2.43	3.58	4.32	2.98	3.63	3.40
동창회	4.15	4.62	3.45	3.80	3.18	3.05	3.15	2.72	3.30	2.98



〈그림 3〉 활동성 평가에 대한 의복과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주색치마는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동창회 상황에서 활동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반회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7), 반회장 옥색저고리·남색치마(C10)는 결혼식 상황에서 40, 50대가 20대에 비해 활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즉 40, 50대는 결혼식 상황에서 반회장 저고리의 배색형 한복에 대해 활동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에서 현대성 평가는 주효과에서 의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상황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MCA의 의복 평균을 보면 자주색수트(C2)와 분홍수트(C1)가 현대적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노년여성은 난색계통의 양장차림을 했을 때 좀 더 현대적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홍한복(C5)과 옥색한복(C8)은 매우 비현대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연한색의 상하동색 한복은 고전적이며 보수적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현대성 평가는 의복과 연령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그 상호작용형태는 <

표 4〉, 〈그림 5〉와 같다. 20대는 특히 분홍한복과 옥색한복을 현대성이 낮다고 지각하였고, 40, 50대는 한복 중에서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6)를 20대보다 현대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40, 50대는 전체적으로 20대보다 수트차림을 현대성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즉 현대성 평가시에 40, 50대는 20대보다 좀 더 의복 유형에 영향받는 편이었다.

종합적으로 〈표 1〉의 eta 계수를 비교해 볼 때 노년여성의 인상형성에는 지각대상자의 의복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관찰자의 연령이었으며 상황은 단독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의복과 관찰자의 연령에 따라 노년여성의 인상형성이 달리 평가되었고, 상황은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인상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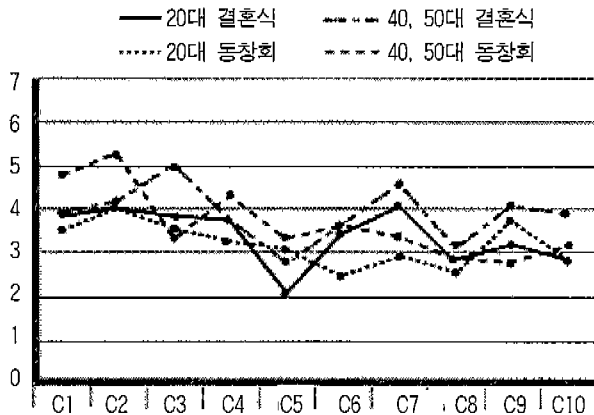
2.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형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인상형성에서 관찰자의

<표 3> 활동성 평가의 의복, 관찰자의 연령, 상황에 따른 평균치

(N=400)

연령	의복 상황	수 트				한복(저고리·치마)					
		분홍 C1	자주 C2	옥색 C3	남색 C4	분홍 C5	분홍· 자주 C6	분홍반회장 · 자주 C7	옥색 C8	옥색· 남색 C9	옥색반회장 · 남색 C10
20대	결혼식	3.87	4.03	3.87	3.80	2.10	3.47	4.07	2.83	3.17	2.93
	동창회	3.53	3.97	3.57	3.30	3.07	2.47	2.93	2.57	3.77	2.87
40, 50대	결혼식	3.83	4.17	5.03	3.73	2.77	3.70	4.57	3.13	4.10	3.87
	동창회	4.77	5.27	3.33	4.30	3.30	3.63	3.37	2.87	2.83	3.10



<그림 4> 활동성 평가에 대한 의복, 관찰자의 연령,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므로 각 의복별로 그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는 비교적 유의적인 차이가 많이 나타난 선호, 품위, 능력 평가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선호 평가는 분홍수트, 옥색수트, 분홍한복, 옥색한복을 제외한 모든 의복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40, 50대가 20대보다 대부분의 수트와 한복을 더욱 선호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40대는 반회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M=5.25). 20대는 대부분의 의복을 이른적 평균치인 4.0미만으로 평가하였으나 옥색수트(C3)는 4.37로서 옥색수트의 선호 정도가 가장 높았다.

품위 평가는 옥색수트(C3)와 반회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7)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40, 50대가 20대보다 그 의복을 더

품위 있게 평가하였다. 20대는 남색수트(C4), 옥색한복(C8), 반회장 옥색저고리·남색치마를 비교적 품위 있게 평가하였으나(M=5.19), 40, 50대는 반회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를 특히 품위 있게 평가하였다(M=5.89). 즉 20대는 노년여성이 난색계통보다 한색계통의 의복을 착용한 모습을 더 품위 있게 지각하는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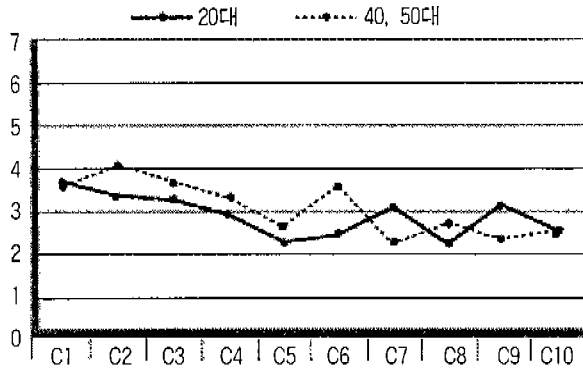
능력 평가는 분홍한복(C5)과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6), 옥색한복(C8)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20대가 40, 50대보다 더 능력 없게 평가하였다. 즉 20대는 40, 50대보다 대체적으로 한복 착용 모습을 더 능력 없게 지각하였다.

활동성 평가는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6)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20대는 40, 50대보다 활동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t=-2.08, p<.05, 20대: M=2.97, 40,50대: M=3.67). 여성성

〈표 4〉 현대성 평가의 의복과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평균치

(N=400)

의복 연령	수 트				한복(저고리·치마)					
	분홍 C1	자주 C2	옥색 C3	남색 C4	분홍 C5	분홍· 자주 C6	분홍반희장 · 자주 C7	옥색 C8	옥색· 남색 C9	옥색반희장 · 남색 C10
20대	3.68	3.33	3.23	2.88	2.23	2.43	3.05	2.20	3.10	2.50
40,50대	3.60	4.08	3.70	3.28	2.63	3.53	2.25	2.68	2.33	2.50



〈그림 5〉 현대성 평가에 대한 의복과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 5〉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형식의 차이

(N=400)

인상 연령	의복	수 트				한복(저고리·치마)					
		분홍 C1	자주 C2	옥색 C3	남색 C4	분홍 C5	분홍· 자주 C6	반희장분홍 · 자주 C7	옥색 C8	옥색· 남색 C9	반희장옥색 · 남색 C10
선호	20대	3.78	3.35	4.37	3.53	3.87	3.77	4.02	4.02	3.50	3.53
	40,50대	4.45	4.58	4.73	4.35	4.50	4.95	5.25	4.53	4.32	4.82
	t	-1.59	-3.58**	-.85	-2.18*	-1.68	-3.21**	-3.48**	-1.61	-2.18*	-3.83**
품위	20대	4.32	4.53	4.97	5.19	4.80	4.62	4.85	5.19	5.12	5.19
	40,50대	4.70	4.89	5.54	5.25	5.20	4.74	5.89	5.40	5.61	5.76
	t	-1.07	-1.08	-2.30*	-.22	-1.27	-.41	-3.87**	-.67	-1.59	-1.96
능력	20대	3.83	4.23	3.47	3.70	2.57	3.41	4.04	3.08	3.59	3.59
	40,50대	4.30	4.40	3.58	4.09	3.43	4.31	4.27	3.66	3.70	3.78
	t	-1.45	.67	-.39	-1.29	-2.95**	-3.48**	-.87	-2.08*	-.37	-.61

\*p<.05    \*\*p<.01

평가는 반희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7)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40, 50대가 20대보다 여성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t=-2.20, p<.05, 20대: M=4.34, 40,50대: M=4.98). 현대성 평가는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6)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20대가 40, 50대보

다 현대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t=-2.68, p<.05, 20대: M=2.43, 40,50대: M=3.53).

### 3. 자극물에 따른 지각 연령의 차이

각 자극물의 옷차림에 따라 관찰자가 지각하는

〈표 6〉 자극물에 따른 지각 연령의 차이

자극물	C4	C2	C1	C7	C3	C10	C5	C8	C9	C6
연령	57.93	58.08	58.40	60.03	60.18	60.28	60.36	60.63	61.15	61.35
F=2.07*										

\*p<.05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10개 자극물의 지각된 연령의 평균치는 57.93~61.35세로 나타났다.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C6)와 옥색저고리·남색치마(C9)는 각각 61.35세, 61.15세로서 비교적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다. 남색수트(C4)와 자주색수트(C2)는 각각 57.93세, 58.08세로서 연령이 낮게 평가되었다.

즉 옷차림에 따라 같은 모델이라도 노년여성의 연령이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한복보다 수트를 착용했을 때는 좀 더 연령이 젊어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트의 경우에는 연한 색보다 진한 색이 더 젊게 보였다. 한복은 상하 다른 색의 배색을 사용할 때 깃, 고름에 다른 색을 배색한 반희장 저고리를 착용하는 것이 단색 저고리를 입는 것보다 디자인의 변화를 주게 되므로 더 젊게 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노년여성의 인상형성 과정에서 한복 및 양장 차림의 의복, 관찰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른 차이를 밝히며, 의복에 따라 연령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인상 평가는 선호, 품위, 능력, 활동성, 여성성, 현대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1. 인상형성에 대하여 의복, 관찰자의 연령, 상황에 따른 삼원변량분석(10×2×2)을 실시한 결과 대

부분의 특성이 의복과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주효과와의 차이가 있었으나 상황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활동성 평가에서 의복,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2. 관찰자의 연령은 선호, 품위, 능력, 활동성, 여성성 평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40, 50대는 20대보다 모든 의복에 대해 선호, 품위, 능력, 활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더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것은 자극물의 모델이 60대 노년층이므로 40, 50대가 20대보다 더 지각대상자에게 친근감을 느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대인관계의 유사성 원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3. 의복에 따라 품위, 능력, 활동성, 여성성, 현대성이 달리 평가되었다. 자주색수트는 능력, 활동성, 현대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남색수트는 여성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분홍한복과 옥색한복은 능력, 활동성, 현대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자주색 반희장의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는 한복 중에서 특히 가장 능력 있게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한복 중에서도 난색의 적절한 배색이 능력 있게 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주색 반희장의 옥색저고리·남색치마는 가장 품위 있게 평가되었다. 즉 자주색반희장의 옥색저고리와 남색치마는 전통적인 배색이므로 관찰자에게 더욱 점잖고 숙속하게 지각된 것이다.

4. 활동성 평가는 의복 및 상황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반희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는 동창회에서는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결혼식 상황에서는 동창회보다 더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활동성 평가는 의복, 관찰자

의 연령 및 상황의 3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20대는 분홍한복을 특히 결혼식 상황에서 활동성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40, 50대는 자주색수트를 동창회 상황에서 활동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현대성 평가는 의복 및 연령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20대는 40, 50대보다 분홍한복과 옥색한복을 현대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5. 각 의복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40, 50대는 20대보다 자주색수트와 남색수트의 선호 정도가 더 높았고, 옥색수트를 더 품위있다고 평가하였다. 20대는 40, 50대보다 옥색한복과 분홍한복을 더 능력 없게 지각하였다. 또한 40, 50대는 20대보다 반회장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를 품위 있게 평가하고 더 선호하였으며,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 옥색저고리·남색치마와 반회장 옥색저고리·남색치마의 선호 정도도 더 높았다. 즉 상하동색 한복은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배색형의 한복은 40, 50대가 2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6. 지각대상자의 옷차림에 따라 관찰자의 지각 연령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분홍저고리·자주색치마와 옥색저고리·남색치마는 좀 더 연령이 높게 지각되었고, 남색수트와 자주색수트는 연령이 낮게 지각된 편이었다. 이것은 노년여성은 한복보다 수트를 착용할 때 더 연령이 젊어 보이며, 고명도보다 저명도의 수트가 좀 더 젊게 지각될 수 있음을 뜻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복 및 양장 차림에 따라 품위, 능력, 활동성, 여성성, 현대성 등이 달리 지각되었으며, 특히 전통 배색의 한복차림은 노년여성에게 품위있는 인상효과를 주었다. 또한 관찰자의 연령이나 상황보다 지각대상자의 의복은 인상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옷차림에 따라 노년여성의 연령이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임의표집에 의하여 관찰자를

선정하였고, 자극물의 의복은 다양한 의복 스타일과 색 중에서 제한된 종류로 조작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의복 무늬와 관찰자의 성별을 연구변인으로 조사하며, 여러 연령층의 의복 착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각대상자의 인물의 효과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p.46-48.
- 강혜원, 이주현(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pp.31-43.
- 강혜원, 고애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211-227.
- 고애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광경(1992).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 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재숙(1991). 의복범주, 유행성 및 착용자의 연령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 노인의 의생활양식과 관련지어.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남미우, 강혜원(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pp.311-326.
- 문영보, 이인자(1993). 외모변인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20, pp.17-30.
- 박혜선(1982).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1995). 의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선경(1993). 남성복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 강승희(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111-1121.
- 이은미, 강혜원(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pp.197-210.
- 이은영(1990).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인자(1996). 남성의 매력성, 성공성 및 직업적 추론이 가능한 의복과 인물의 특징에 관한 연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실험조사 연구. 복식, 29, pp.127-142.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pp.167-180.
- 이주현, 조공호(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pp.747-764.
- 이향미, 김재숙(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312-320.
- 이현화, 박찬부(1998).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 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 37, pp.119-132.
- 이혜숙, 김재숙(1998a).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pp.597-606.
- \_\_\_\_\_(1998b).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 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052-1059.
- 전호경, 황선진(1998). 직장상황 임산부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6), pp.706-715.
- 조필교, 정혜민(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19.
- 차미숙(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향숙(1993). 실버계층 여성 의류상품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최금순(1995). 중년기와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pp.250-251.
- 홍병숙(1988).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비교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2(3), pp.373-382.
- Bell, E. L.(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8-12.
- COS : Color System(1997). 한국유행색산업회, pp.91,121,141,154.
- Damhorst, M. L.(1984-1985). Meanings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pp.39-48.
- \_\_\_\_\_(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1-12.
- Johnson, K., & Roach-Higgins, M. E.(1987).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3), pp.1-8.

- Rees, D. W., Williams, L., & Giles, H.(1974). Dress style and symbolic mea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logy*, 5, 1-7, cited by Lennon, S. J., & Davis, L. L.(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 Theoretical perspectiv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pp.41-48.

- Sweat, S. J., & Zentner, M. A.(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Lexington Books. pp.321-336.